

영화 『관상』에 나타난 관상(觀相)의 정치적 기능과 권력 정당화 기제에 관한 연구

-권력과 탐욕의 서사적 재현을 중심으로-

이 지 영*, 손 서 후**

목 차

- I. 머리말
- II. 영화 『관상』의 서사 구조와 권력 형성
- III. 영화 『관상』에 나타난 관상의 정치적 기능
- IV. 권력 정당화와 탐욕의 서사적 재현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영화 『관상』(2013)에서 재현된 권력과 탐욕의 상관성을 마키아벨리의 권력 정당화 논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계유정난(癸酉靖難)의 역사적 맥락과 대조하여 관상이 권력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해석한다. 기존 연구가 관상을 운명론이나 도덕성 평가 차원에서 다루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통치자가 찬탈의 과정을 천명(天命)으로 치환하고, 정적(政敵)을 배제하는 데 활용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Visual propaganda)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론적 틀로 삼되, 그 적용 범위를

* 李指榮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fanta7409@naver.com

** 孫蓀熙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설계학과 박사수료 afrofia@naver.com

투고일: 2026. 5. 7. 심사완료일: 2026. 5. 8. 게재확정일: 2026. 7. 15.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219>

권력 획득과 명분 구축 사이의 서사적 구조 해석에 한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영화 속 인물의 정치적 결단과 명분 구축 과정에 담긴 역사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마의상법(麻衣相法)』이라는 고전 기호 체계가 권력의 상징적 배제 장치로 전용되는 작동 방식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근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의와 교차 검토하여, 권력 정당화와 탐욕의 서사적 재현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속 관상은 찬탈의 과정을 천명으로 치환하고, 그 폭력성을 은폐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로 재현된다. 둘째,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대립은 비르투(Virtu)를 둘러싼 권력 경쟁의 양상으로 해석되며, 관상의 기호 체계는 정적을 배제하기 위한 선전 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관상가 내경의 비극은 포르투나(Fortuna)의 영역, 즉 인간의 기술로도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격랑과 연결되며, 이는 권력 서사의 비극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영화 『관상』을 마키아벨리적 권력관과 조선의 역사적 실재가 교차하는 정치적 텍스트로 재조명함으로써, 권력의 본질이 명분과 탐욕의 경계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서사화되고 구조화되는지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관상의 기호가 권력 정당화와 정치적 배제의 과정에서 어떻게 전용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미지와 기호가 정치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관상, 권력, 서사적 재현, 시각적 프로파간다, 기호의 전용

I. 머리말

영화 『관상』(2013)은 조선 초기의 정치적 격변기인 계유정난(癸酉靖難)을 배경으로, 관상(觀相)을 권력 획득과 정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통치 기제로 서사화한 작품이다. 계유정난은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으로, 정치적 명분과 폭력이 공존하는 권력 찬탈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이 동시에 융합된 팩션(Faction)¹⁾ 사극의 특징

1) 팩션(faction)은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결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서사 양식을 지칭한다.

을 보여주며, 과거를 매개로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환기하는 장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극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재현보다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의 개입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와 서사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넘나드는 특징을 지닌다.²⁾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극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극은 역사적 사건을 서사의 골격으로 삼되, 허구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재인적(再認的) 사극의 형태를 견지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시적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관상』은 한 인간의 운명적 서사를 넘어, 권력 구조와 그에 결속된 인간의 탐욕을 투사하는 정치 텍스트로 읽힐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⁴⁾는 영화 『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해 왔다. 먼저, 관상을 인간의 성정과 운명을 규정하는 상징 체계로 이해하며, 인물의 몰락을 천명(天命)의 귀결로 간주하는 운명론적 경향을 드러낸다. 서사 구조 측면에서는 영화의 이야기 구성과 인물 변화, 특히 주인공과 대립자 간의 갈등

황영미, 「한국 사극영화 장르의 유형 연구」, 『영화연구』 68, 한국영화학회, 2016, 296-297쪽 참조.

2) 송연주, 「역사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략」,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 (5),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7, 48쪽.

3) 이효인, 「2000년대 한국 사극영화의 아이러니 서사 연구」, 『영화연구』 89, 한국영화학회, 2021, 47-48쪽.

4) 양진호, 「명론(命論)을 활용한 영화 <관상> 분석」, 『스토리콘텐츠』 5,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2024, 207-222쪽; 이수향, 「운명과 개인의 오래된 대결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 『영화평론』 26, 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14, 514-528쪽; 이병민, 「영화 <관상>의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 『스토리&이미지텔링』 24, 건국대학교 GLOCAL(글로벌)캠퍼스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22, 105-129쪽 참조.

구도를 중심으로 극적 전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 영화의 경우, 주인공은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는 약자로 설정되어, 미드포인트(Mid-point)⁵⁾를 기점으로 극적 긴장이 강화되는 구조를 갖는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관상을 인간의 내면적 성정이나 운명 해석의 도구로 한정하거나, 서사적·윤리적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보인다. 즉, 관상이 권력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 담론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3년 개봉작인 영화 『관상』을 통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특정 시대의 흥행 현상이나 역사 재현의 정확성이 아니라 관상이 권력 획득과 정당화의 기제로 활용되는 구조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 지도자의 시각적 이미지와 재현 방식은 대중의 신뢰 형성과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가 생산하는 이미지 역시 정치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상』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권력이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치적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상을 개별 주체의 운명을 점치는 예측 기술이 아닌,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판단의 기술이자, 찬탈의 과정을 천명으로 치환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N. Machiavelli)의 현실주의 정치 철학을 분석의 이론적 틀로 삼아 『관상』에 나타난 권력의 역학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란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천적 기술이

5) 송연주, 위의 논문, 49쪽. 미드포인트(mid-point)는 Syd Field가 『Screenplay』(1979)에서 체계화한 3막 구조(three-act structure)의 핵심 전환점으로, 서사의 방향과 긴장이 전환되는 지점을 지칭한다.

6) 송연주, 위의 논문, 49쪽.

라고 보았다.⁷⁾ 그는 통치자가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도덕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즉 비르투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판단을 도덕과 분리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⁸⁾ 아울러 인간의 역량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운명과 우연의 영역인 ‘포르투나’를 인정함으로써, 비르투와 포르투나의 길항(拮抗) 관계를 권력 작동의 핵심 구조로 제시하였다.⁹⁾ 이러한 관점은 권력이 도덕적 명분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그 이면의 현실적 권력 의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영화 속 관상가 내정의 비극 역시 이 구조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계유정난의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 영화 속 서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관계를 비교·분석한다. 이는 영화가 재현하는 권력 투쟁을 단순한 허구적 서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 권력 작동 방식과의 대응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는 영화 『관상』을 역사적 사실의 재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계유정난을 바탕으로 구성된 픽션 텍스트로서 영화가 권력과 정당성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영화의 주요 장면과 인물 간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관상이 인물 판별과 권력 정당화, 그리고 배제와 숙청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과 비교·분석하여,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적 명분을 구성하고 욕망을 은폐하는지를 해석한다.

본 연구는 마키아벨리의 권력론을 중심 분석 틀로 활용하되, 기타 정치

7) 박성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철학논총』 102 (4), 새한철학회, 2020, 508쪽.

8) 한만형, 「마키아벨리의 시민적 비르투에 관한 일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34-35쪽.

9) 김경희,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관 연구」, 『한국정치연구』 26 (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64-65쪽.

철학적 논의는 권력 정당화의 의미를 보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참고 관점으로 한정한다. 이때 마키아벨리의 권력론은 조선의 역사적 현실에 직접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획득과 정당화, 정치적 배제의 작동 원리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동일성을 논증하기보다는 영화 『관상』이 재현하는 권력의 서사 구조와 정당화 메커니즘에 대한 해석적 이해를 시도한다.

특히 『마의상법(麻衣相法)』의 고전적 기호 체계가 변용된 서사 안에서 어떻게 기호의 전용(Semiotic appropriation)을 통한 상징적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밝혀, 시각적 이미지가 권력 형성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영화 『관상』을 권력과 탐욕, 그리고 명분이 교차하는 정치적 전유의 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권력의 본질이 명분과 욕망의 경계에서 서사화되는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영화 『관상』의 서사 구조와 권력 형성

1. 서사 구조와 권력 형성의 단계

영화 『관상』의 역사적 배경인 계유정난은 1453년(단종 1년) 수양대군이 황보인·김종서 등 고명대신(顧命大臣)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이 사건을 종사(宗社)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명분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왕권을 위협하는 신권(臣權) 세력을 제거¹⁰⁾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한 정치적 찬탈의 사례로

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端宗實錄 2』,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端宗 元年(1453) 10月 10日 癸巳條 記事: “世祖晨召權 韓明 洪達孫曰: 今日當掃妖賊 以安宗社 諸君宜如約 我熟思之 姦黨之最姦點者 莫如金宗瑞 彼若先知 則事不集矣 我率一二力士 徑詣其家 立斬之 馳啓 餘賊不足平也 君等以爲何如? 皆曰: 可. …… 我率一二力士 徑詣其

평가된다. 영화는 이 역사적 사건을 서사의 골격으로 설정하되, 당대 실존 인물이었던 목효지¹¹⁾를 모티프로 한 내경이라는 인물을 사건의 중심에 배치하여 권력 형성의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권력이 명분을 구축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가시화하는 전략적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영화 『관상』의 서사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주변부에서 권력 중심으로의 진입 단계다. 관상이 내경은 재야의 인물로서 권력 구조의 외부에 위치하지만, 그의 관상 능력이 권력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점차 권력 중심부로 편입된다. 이 단계에서 내경의 관상은 단지 점술적 행위가 아닌, 권력 내부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내경이 보유한 관상 기술은 권력 집단에 정치적 유용성을 지닌 도구로 인식되어, 권력 집단으로 하여금 그를 정권 유지의 핵심 조력자로 발탁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관상은 단순한 개인적 능력을 넘어, 권력관계라는 역학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사적 전환점을 마련한다.

둘째, 권력 갈등의 발생 단계이다. 수양대군과 김종서로 대표되는 두 권력 집단 사이의 긴장이 본격화되면서, 내경의 관상 능력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관상은 단순히 인물의 성정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과 적대를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으

家 立斬之 馳啓 餘賊不足平也 君等以爲何如? 皆曰: 可.”

11) 목효지(睦孝智)는 『端宗實錄』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로, 단종 즉위년(1452) 능지(陵地)의 풍수적 문제를 비밀 서간(書簡)으로 상소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영화 속 내경은 관상가이자 풍수가로서 역사적 행적을 참조하여 서사적으로 재구성된 인물로 볼 수 있다. 『端宗實錄』, 端宗 卽位年(1452) 6月 5日 丙寅條 記事: “典農寺奴睦孝智以新陵之地不可用 密以小簡啓曰: 獻陵來脈 飛峯倒脚 行山之足 主弱客强 山源窮極之地 水脈向東背流 穴道屈曲 正是關峽花假之地 非正 正穴 魯山以簡示姜孟卿孟卿啓曰: 前日臣與大君及諸大臣審定 臣雖未知風水之理 然觀形勢 似若無害 請下政府更議.”

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또한 관상의 기호 체계가 권력 갈등의 구도 속에서 재맥락화됨으로써, 관상은 이미 감식안(鑑識眼)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판단의 도구로 전용되는 궤도에 진입한다.

셋째, 폭력과 결단의 단계이다.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서사의 중심부에 배치됨으로써, 권력은 상징적 설득이 아닌 물리적 폭력을 통해 재편된다. 이 단계에서 주목할 것은 폭력이 단순히 힘의 행사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상을 통해 사전에 구성된 정치적 명분의 실현으로 서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폭력은 곧 관상이 예고한 운명론적 귀결로 제시되어, 내면의 자의성과 폭력성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교묘히 은폐된다.

넷째, 권력 장악과 배제의 단계이다.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이 완성되고 난 후, 내경은 차츰 권력 구조로부터 배제된다. 내경의 배제는 단순한 서사적 결말이 아니라, 승리를 거머쥔 권력이 더 이상 자신을 위장하거나 정당화할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즉 관상이라는 기술이 권력 획득의 주요 정당화 기제로 활용되었으나, 권력이 완성된 이후 그 유용성을 상실하며 필연적으로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의 단계적 전개는 역사 영화 장르의 일반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역사 영화의 서사는 주인공을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는 약자로 설정하고, 서사의 전환점을 기점으로 극적 긴장을 강화하는 구조를 취한다.¹²⁾ 그러나 『관상』의 서사가 장르적 공식을 넘어서는 지점은, 이러한 단계적 전개 자체가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을 가시화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이 영화의 서사는 단지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하며 특정 주체에게 어떻게 집중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가시화하는 체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2) 이병민, 「영화 <관상>의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 『스토리&이미지텔링』 24, 건국대학교 GLOCAL(글로벌)캠퍼스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2, 107-108쪽.

2. 인물 관계와 권력의 역학

『관상』의 권력 역학은 세 인물, 즉 수양대군, 김종서, 내정의 삼각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독해하는 것은, 본 서사가 담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평면적으로 도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인물이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서사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양대군은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능동적으로 진입하는 서사의 주도적 행위자이다. 그는 기존 권력 질서의 외부에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인물로, 마키아벨리가 역설한 비르투, 즉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적 수단과 역량을 전형적으로 구현하는 존재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의 도덕적 기준과 관념을 과감히 초월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영화 속 수양대군이 보여주는 과감한 행보는 바로 이러한 비르투의 논리를 서사적 차원에서 체현해 낸 결과이다. 특히 수양대군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기회(Occasione), 즉 권력 획득의 가능성이 열리는 정치적 국면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¹⁴⁾ 따라서 그의 행위는 도덕적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를 가장 철저하게 내면화한 정치적 행위자로 독해될 수 있다. 특히 수양대군이 관상을 자신의 권력 획득 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관상이 단순한 운명 해석의 도구가 아닌, 정치적 판단과 명분 구축의 기제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례라

13) 한만형, 앞의 논문, 34-36쪽.

14) 김정희, 앞의 논문, 59-60쪽.

할 수 있다.

김종서는 기존 권력 질서의 공고한 수호자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강력한 충신으로 묘사되지만, 실상은 현재의 권력 배치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수양대군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영화가 김종서를 도덕적 결함이 없는 전형적 충신으로 이상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역시 기성의 권력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을 지닌 정치적 행위자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양대군과의 대립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척(對斥)이 아닌, 서로 다른 지향점을 지닌 두 권력 사이의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두 인물의 충돌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점유를 둘러싼 구조적 경쟁의 양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상』의 서사는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권력의 비정한 현실주의적 논리를 농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내경은 이러한 권력 구도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권력 행사의 실질적 행위자가 아니라, 정적의 식별과 축출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의 재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기능적 매개자로 활용된다. 관상이라는 기술을 통해 사람의 운명과 기질을 판별하고 분류해 내는 내경의 능력은, 권력 집단에 의해 정치 도구로 전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내경의 서사적 위치가 갖는 중요성은, 그가 권력 외부의 자장(磁場)에 머물면서도, 권력 작동의 핵심 기제를 담지하고 있다는 역설(逆說)에 있다. 즉, 내경은 권력 행사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의 관상 능력은 권력 집단의 선별과 배제라는 정당성 확보의 결정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내경의 기술은 더 이상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권력 구조 내에서 특정한 정치적 함의를 생산하는 도구로 전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경은 권력의 피동적 대상이 아니라, 권력 작동의 핵심 기제를 담지하고 있는 능동적 매개자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의 비극¹⁵⁾은 바로 이러한

15) 결국 내경의 비극은 그의 기술적 전문성이 거대한 권력의 역학에 압도되는 지점에서

역설적 지위, 즉 권력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그 심장부의 논리를 작동시킨다는 모순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이 삼각 구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인물의 관계가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관상이라는 기호 체계를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수양대군은 관상을 권력 획득의 도구로 전용하고, 김종서는 관상의 기호 체계 속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¹⁶⁾되며, 내경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권력 정당화의 매개자로 기능한다. 이러한 삼각 구도의 역학은, 관상이 단순한 개인적 판단의 기술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구성하고 재편하는 정치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3. 미드포인트(Mid-point)와 권력 전환

『관상』의 서사에서 미드포인트는 단순한 긴장의 전환점이 아니라, 권력 귀속이 재편되는 지점으로 활용된다. 역사 영화에서 미드포인트는 서사의 방향과 긴장이 전환되는 핵심 전환점으로 규정되지만¹⁷⁾, 『관상』에서 이 전환점은 내경의 정치적 선택, 즉 ‘권력에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에

발생한다. “파도는 보았으나,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의 회한은 개별 인물의 관상(파도)은 읽어냈지만, 그 인물들을 휩쓰는 시대의 구조적 흐름(바람)은 제어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비극은 권력 외부에 위치하면서도 그 심층 논리를 작동시키는 역설적 지위에서 비롯된다.

16) 김종서는 관상의 기호 체계 속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내경은 처음 김종서를 ‘나라를 지킬 위엄 있는 호랑이’로 보았으나, 수양대군 세력은 동일한 기호를 ‘주인을 물어뜯을 잔인한 맹수’로 재정의하며 그를 숙청의 명분 속으로 밀어 넣는다. 특히 인위적으로 이마에 점(點)을 찍어 관상을 변모시키려는 시도는, 관상이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권력의 의도에 따라 조작되고 재편되는 ‘정치적 전장’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양대군은 이러한 관상학적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김종서의 정치적 행위인 ‘황표정사(黃標政事)’를 찬탈을 위한 역모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17) 송연주, 앞의 논문, 49쪽.

저항할 것인가?’의 운명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그 궤를 나란히 하고 있다.

내경이 수양대군의 관상을 읽고 그 정치적 함의를 인지하는 순간, 서사는 단순한 운명의 예언 구조에서 벗어나 권력 선택의 구조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관상은 더 이상 운명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 편입 여부를 결정짓는 정치적 판단의 분수령으로 작동하게 된다. 내경이 수양대군의 관상에서 읽어 낸 것은 정해진 명수(命數)의 운명적 징표라기 보다, 기존 권력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표지(標識)였다. 그 순간 내경은 운명의 해석자에서 권력 판단의 주체로 급격히 전환되며, 관상의 기능 역시 예언적 차원에서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정치적 차원으로 치환한다.

미드포인트를 경계로 내경의 관상 능력은 그 정치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전 단계에서 관상이 개인의 성정과 운명을 읽는 기술로 제시되었다면, 미드포인트 이후의 관상은 권력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판단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전환의 의미는 서사의 표면적 긴장 강화라는 본연의 장르적 기능을 넘어, 관상이 권력 정당화의 기제로 전용되는 과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전환은 단지 서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권력 귀속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드포인트 이후의 서사는 파편화되었던 힘의 질서가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일극화(一極化) 과정을 노골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내경의 관상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 기제로 전용되며, 인식 도구를 넘어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정치적 확장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내경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는 서사적 장치로도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권력 판단의 매개자로 전환된 내경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포르투나¹⁸⁾의 영역, 즉 인간의 기술

18) 포르투나(Fortuna)는 인간의 능력 같은 인간적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통해 권력자가

로도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격랑에 편입되며, 권력 구조에 의해 철저히 규정되고 포섭되는 구조적 결과로 귀결된다.

Ⅲ. 영화 『관상』에 나타난 관상의 정치적 기능

1. 관상의 전통적 기능과 인식 구조

관상(觀相)은 인간의 용모와 자태를 포함한 체상(體相)과 기색 등을 통해 그 사람의 품성과 성향, 그리고 길흉화복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학문¹⁹⁾으로 정의된다. 이는 관상이 단순한 미신적 점술이 아니라, 인간의 외양에 투영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유의미한 인식 기술임을 시사한다. 관상의 역사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랜 전통을 지니며, 그 이론적 체계는 『마의상법(麻衣相法)』²⁰⁾과 『신상전편(神相全篇)』²¹⁾ 등의 고전 텍스트를 통해 정밀하게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얼굴의 각 부위와 그것이 지시하는 성정·운명·사회적 위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인 기호 체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기호 체계는 인간의 외양을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닌, 내면적 성정과 사회적 운명을 가시화하는 표지(標識)로 읽어내는 인식론적 틀을 제공한다.²²⁾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경희, 앞의 논문,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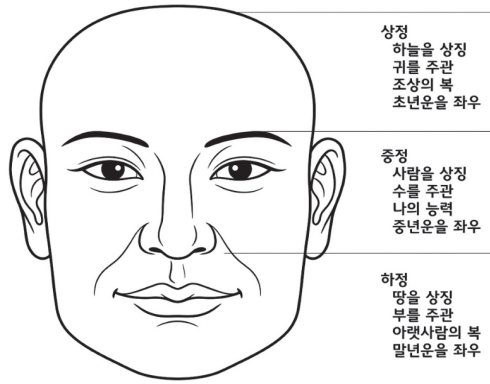
19) 김종학, 「관상학에서 심상의 귀납적 접근 시론」, 『역사와 융합』 28, 바른역사학술원, 2025, 189쪽.

20) 『마의상법』은 송(宋)대 마의도자(麻衣道者)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관상학의 고전으로, 동아시아 관상학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문헌이다. 얼굴의 부위별 형상과 그에 따른 길흉화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대 관상서의 모태가 되었다.

21) 명(明)대 원공(袁珙)과 그 아들 원충철(袁忠徹) 등의 설을 집대성하여 엮은 관상학 백과사전적 문헌이다. 『마의상법』의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인체의 기색(氣色)과 골격 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여 실전 관상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22) 麻衣道者, 조성우 역, 『마의상법』, 명문당, 1989, 3-4쪽.

전통적 관상술의 핵심은 얼굴을 하나의 기호 체계로 읽어내는 데 있다. 『마의상법』을 비롯한 상학(相學) 이론에서는 얼굴의 각 부위를 독립적인 의미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성격과 삶의 양상을 해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얼굴은 상



〈그림 1〉 얼굴의 삼정(三停) 및 안면 부위
(출처: 저자 구성)

정(上停)·중정(中停)·하정(下停)으로 구분되며, 각각 이마, 코를 중심으로 한 중안부(中顔部), 인중과 턱에 이르는 하안부(下顔部)에 해당한다.²³⁾ 삼정 체계는 단순히 안면의 공간적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질과 생애 주기적 상태를 분석하는 결정적 판별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 체계는 가시적인 외형 평가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성격과 사회적 위치를 외양으로부터 파악하는 인식론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²⁴⁾

전통적 관상술에서 판별과 분류의 기능은 단순한 개인적 예측에 머무르지 않는다. 관상은 사회적 질서 속에서 타자를 특정한 범주에 배치하는 분류 행위로 작용²⁵⁾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위계와 역할을 자연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관상가의 판단이 사회적 권위를 지니

23) 우순이, 「역대 대통령의 貴에 관한 觀相學的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5, 15쪽.

24) 우순이, 위의 논문, 2쪽.

25) 김종학, 「관상학에서 심상의 귀납적 접근 시론」, 『역사와 융합』, 28, 바른역사학술원, 2025, 189쪽.

는 이유는, 관상의 기호 체계가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오랜 전통과 이론적 텍스트로 뒷받침된 문화적 사유이자 사회적 인식²⁶⁾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치 질서 속에서 관상술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조선의 국가 정당성은 성리학적 도덕 질서를 통해 유지되었다. 유교 국가에 있어서 통치자 그룹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덕적 수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지식인 관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문치주의(文治主義) 국가에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하였다. 도덕적 수양을 갖춘 지식인 관료들이 권력 투쟁을 할 때에는 고도의 이론과 명분이 필요하였고, 이 명분은 사림의 여론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만 하였다.²⁷⁾ 그러나 실제 정치의 장(場)에서는 혈연·당쟁·세력 균형이라는 현실 권력의 논리가 이 도덕적 명분과 대치하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인간의 얼굴·이미지·행동을 분석하여 인간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논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²⁸⁾되었으며, 관상은 바로 이러한 논리가 조선의 정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가시화하는 인식 기술²⁹⁾이었다. 영화 『관상』은 이러한 관상술의 전통적 기능을 서사의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단순한 운명 예언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영화는 관상이라는 인식 기술이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 기능으로 전용되는지를 가시화함으로써, 관상을 권력 작동의 핵심 기제로 재구성한다.

26) 강선희 외, 「동양 관상학을 적용한 성격별 얼굴 설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21 (4), 한국디자인학회, 346쪽.

27) 이성무, 「조선 후기 당쟁사에 대한 제설의 검토」,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9, 144-145쪽.

28) 이한석·김태형, 「시각 권력에 관한 이미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 (6), 한국콘텐츠학회 2009, 145-146쪽.

29) 윤영재, 「朝鮮時代 御眞과 상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쪽.

2. 관상의 정치적 전용(기호에서 권력으로)

관상의 정치적 전용은 기호 체계가 본래의 인식론적 기능을 벗어나 권력의 의도에 따라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화 『관상』은 분류와 통제를 지향하는 권력의 속성이 조선의 정치 구조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지배 기제로 변모하는지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영화에서 관상의 정치적 전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인물 판별과 충역(忠逆) 구분 기준으로의 전용이다. 내정은 문종의 명을 받아 사헌부에서 인재 등용과 역모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정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는 정치적 판단의 기준으로 재편된다. 관상가의 판단 하나가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그림 2〉 관상을 통해 인물의 정치적 성격을 판독하는 장면
(출처: 영화 『관상』(2013), YouTube 영상 캡처.)

결정짓는 구조 속에서, 관상은 이미 권력의 도구로 포섭되어 있다. 특히 내정이 황표정사(黃票政事)로 인해 부당하게 관직에 오른 감찰관의 비리를, 관상을 통해 적발하는 장면은 관상이 단순한 운명 예언을 넘어 정치적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황표정사는 왕을 대신하여 신하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으로, 인사 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관상이라는 기호 체계를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관상이 정치적 판단의 기준으로 전용되는 구조는,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통치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³⁰⁾ 수양대군이 관상이라는 기술을 정치적 판단과 명분 구축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바로 이 비르투의 논리를 서사적으로 구현한 데 있



〈그림 3〉 수양대군의 관상 기호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장면
(출처: 영화 『관상』(2013), YouTube 영상 캡처.)

다. 나아가 수양대군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기회, 즉 권력 획득의 가능성이 열리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관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결정적 전환점을 확보한다.³¹⁾

둘째, 기호의 전용(Semiotic appropriation)을 통한 상징적 배제이다.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김종서의 ‘호랑이상’에 대한 재해석이다. 내정은 처음에 김종서를 배짱과 강한 기질,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판단하며 ‘그는 범이다’라고 판별하고, 나라를 지킬 위엄 있는 호랑이의 상으로 해석한다. 반면 수양대군 세력은 동일한 기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한다. 다시 말해 호랑이의 위엄은 ‘주인을 물어뜯을 잔인한 맹수’의 위협으로 치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종서는 숙청의 명분 속으로 빠져들게

30) 리기용, 「마키아벨리와 울곡의 리더십 비교」, 『울곡학연구』 40, (사)울곡학회, 2019, 122쪽.

31) 김경희, 앞의 논문, 59-60쪽.

된다. 이처럼 동일한 관상의 기호가 권력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은, 기호의 전용이 상징적 배제의 수단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례이다. 이 점에서 관상의 기호 체계는 중립적인 인식 도구가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편되고 재구성되는 가변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관상의 물리적 조작을 통한 시각적 프로파간다이다. 수양대군 세력이 수양대군의 얼굴에 인위적으로 점(點)을 찍어 관상을 변모시키려는 시도는, 관상이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권력의 의도에 따라 조작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정치적 전장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장면은 관상이라는 기호 체계 자체가 권력에 의해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는 핵심적 서사 장치이



〈그림 4〉 관상의 기호가 권력 정당화로 연결되는 장면

출처: 영화 『관상』(2013), YouTube 영상 캡처.

다. 나아가 수양대군은 이러한 기호의 조작을 통해 김종서의 정치적 행위인 황표정사(黃票政事)를, 찬탈을 위한 역모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점(點)의 조작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정치적 정당화의 서사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관상이 단순한 신체 독해의 기술이 아닌, 권력의 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생산되고 조작될 수 있는 시각적 프로파간다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공통적으로 관상의 기호 체계가 중립적인 인식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재편되는 정치적 가소성(可塑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상의 정치적 전용은 단순한 기술의 오용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구조적 과정의 핵심을 구성한다.

3. 관상과 권력 정당화 메커니즘

관상이 권력 정당화의 기제로 기능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첫째, 권력 집단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실천적 욕망을 지닌다. 둘째, 이러한 욕망의 직접적 표출은 도덕적 명분의 결여와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셋째, 관상은 이데올로기적 보완 장치로 개입한다. 특정 인물의 외양적 징후에 역적(逆賊) 혹은 찬탈자라는 기호적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인위적 폭력조차 천명(天命)을 대행하는 신성한 행위로 치환된다. 넷째, 이러한 치환을 통해 권력의 폭력성은 은폐되고, 찬탈은 불가피한 역사적 필연으로 재규정된다.

수양대군은 관상이라는 기호 체계를 통해 자신의 찬탈 행위를 천명의 실천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정치 폭력의 대의적 명분을 확보한다. 관상가 내경의 판단이 수양대군의 권력 획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용되는 순간, 관상은 단순한 운명 해석을 넘어 정치적 판단의 기술이자 찬탈의 과정을 천명으로 치환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로 작용하기 시작한다.³²⁾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 따르면,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그 힘을 권리로 바꾸고 복종을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배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³³⁾ 이러한 점에서 관상을 통한 천명의 구성은 지배의 도덕적 정당성을

32) 이한석·김태형, 앞의 논문, 149쪽.

33)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최현 역, 집문당, 1977, 216쪽.

확보하는 전환의 열쇠가 된다. 폭력적 찬탈은 천명의 실현으로 재규정되고, 피지배자의 복종은 강제가 아닌 자연적 질서에 대한 순응으로 내면화된다.

영화 『관상』은 표면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론적 테마를 전면화³⁴⁾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이 자신의 목적에 맞춰 운명을 어떻게 기호화하고 조작하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³⁵⁾ 관상가 내경의 비극은 바로 이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내경은 관상이라는 기술을 통해 진실을 읽으려 하지만, 그의 기술은 권력의 의도에 따라 전용되고 조작되며, 결국 그 자신이 권력 정당화의 수단으로 포섭된다. 내경이 수양대군의 관상에서 읽어낸 왕의 징표는, 그것이 내경의 진실한 해석이었든 강제된 판단이었든,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의 찬탈을 천명으로 정당화하는 서사적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내경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관상이라는 기술 자체가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전용되고 포섭되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말한 포르투나의 영역, 즉 인간의 기술로도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격랑의 문제³⁶⁾와 연결된다. 포르투나의 영역 속에 이미 편입된 내경의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권력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관상이라는 기술의 탁월함이 오히려 권력에 의해 포섭되는 계기로 전환되는 역설은, 영화가 관상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위치와 기능의 문제로 재조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영화 『관상』에서 관상의 정치적 기능은 다음의 세 가지 층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자를 분류하고 배제하는 인식 기술로서의 기능과 둘째, 기호의 전용을 통해 정적을 상징적으로 배제하는 정치적 장치로서의 기능, 셋째, 찬탈의 과정을 천명으로 치환하여 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34) 이수향, 앞의 논문, 514-516쪽.

35) 이한석·김태형, 위의 논문, 146쪽.

36) 김경희, 앞의 논문, 54쪽.

시각적 프로파간다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Ⅳ. 권력 정당화와 탐욕의 서사적 재현

1. 권력 정당화의 구조와 탐욕의 서사적 기능

영화 『관상』 속 권력의 정당화는 표면적인 정치 수사(Rhetoric)의 차원을 넘어, 탐욕이라는 인간적 욕망이 서사적으로 재현되는 구조적 방식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앞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이란 도덕적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 속에서 생존하고 확장하려는 의지의 산물임을 역설하였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관철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귀결로 형상화된다.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도덕의 계보』의 제1 논문에서 ‘도덕이란 강자의 자기 긍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에 대한 원한(Ressentiment)을 도덕적 언어로 전환하는 가치 전도(Umwertung)의 산물’임을 논증하였다.³⁷⁾ 그러나 영화 『관상』에서 주목할 점은 이 가치 전도의 방향이 역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양대군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상이라는 도덕적 기호 체계를 동원하여 자신의 폭력을 천명(天命)이라는 언어로 정당화한다. 즉, 강자가 약자의 도덕적 언어를 전용하여, 자신의 권력 의지를 은폐하는 구조가 영화 속에서 재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직접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 백성과 관상가인 내경과 같은 비권력 주체를 의미한다. 영화 속에서 관상은 무력이나 제도적 권력이 아닌 덕성과 천명,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통해 권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37)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367쪽.

수양대군은 이러한 관상의 권위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권력 의지를 천명과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하고 정치적 야망을 천명(天命)이라는 외피 속에 은폐한다. 이 지점에서 영화 『관상』의 권력 정당화 구조는, 니체가 말한 가치 전도의 논리를 역방향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탐욕의 서사적 기능은 이 정당화 구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수양대군의 탐욕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구성되는 욕망의 논리로 제시된다. 개인의 개별성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의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보면³⁸⁾, 수양대군의 탐욕 역시 그가 처한 권력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화는 수양대군을 단순한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권력의 논리를 가장 철저하게 내면화한 정치적 행위자로 재현함으로써, 탐욕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산물임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영화 『관상』은 표면적으로는 운명론적 테마를 전개하면서도, 그 이면에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욕망을 구성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사회계약론적 정당성 기준과 찬탈 권력의 정당성 문제

로크(John Locke)는 『통치론』 제2편에서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며, 이 동의가 결여한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치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다수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나아가 권력이 공공선을 위한 목적을 벗어날 때, 피지배자는 저항할 권리를 지닌다고 논증하였다.⁴⁰⁾ 이러한 로크의

38) 김민철, 「권력관계와 개별화 과정의 관계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쪽

39) 폴 켈리(Paul Kelly), 김성호 역, 『로크의 『통치론』 입문』, 서광사, 2018, 167쪽.

40) 폴 켈리(Paul Kelly), 앞의 책, 207쪽.

동의론은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이 지니는 정당성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영화 속 수양대군의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가 아닌, 관상이라는 기호 체계를 통해 구성된 천명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는 통치권의 근거를 시민의 동의와 신탁에서 찾는 로크적 의미의 정당한 권력과는 근본적으로 그 궤를 달리하는 구조이다. 수양대군은 통치자로서의 정치적 합의를 구하는 대신 천명을 선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동의가 지니는 필요성 자체를 무력화한다. 이처럼 관상이 천명을 지시하는 절대적 기호로 수용될 때, 피지배자의 복종은 외부적 강제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연적 질서에 대한 순응으로 내면화된다. 이 과정에서 동의와 강제의 경계는 모호해지며, 권력 찬탈은 필연적 운명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격상된다.

앞서 루소 역시 『사회계약론』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그 힘을 권리로 바꾸고 복종을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배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관상을 통한 천명의 구성은 바로 이 전환의 핵심 기제로 구현된다. 폭력적 찬탈은 천명의 실현으로 재규정되고, 피지배자의 복종은 자연적 질서에 대한 순응으로 내면화된다. 이 점에서 영화 속 수양대군의 권력 정당화 전략은, 로크가 말한 동의의 논리를 우회하면서도 그 효과를 모방하는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관상』은 이러한 정당화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내경의 끊임없는 저항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은, 관상을 통해 구성된 천명의 논리가 대중에게 완전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경은 수양대군의 관상을 파악하고 그 운명의 흐름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정치적 정당성만큼은 끝내 내면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경의 존재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로크적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의 가능성을 서사적으로 체현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3. 레닌의 국가론과 폭력의 서사적 재현

레닌(Vladimir Ilyich Lenin)은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란 계급 모순의 산물이자 계급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된 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⁴¹⁾ 이 관점에서 보면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구축하는 권력 체계는,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된 폭력의 서사적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왕위 찬탈이 아니라, 특정 권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 배치를 전복하고 새로운 지배 질서를 수립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으로 제시된다.

영화에서 폭력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두 가지 국면으로 재현된다. 첫째는 계유정난 과정에서 자행되는 살육이나 숙청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며, 다른 하나는 관상을 통해 정적을 역적의 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상징적 폭력이다. 이 두 층위의 폭력은 상호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상징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물리적 폭력은 상징적 폭력의 효과를 현실에 더욱 구체화하며 그 권력을 완성해 나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화가 이 폭력의 구조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낭만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는 폭력을 권력 구조의 필연적 산물로 제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포섭되고 배제되는지를 내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섬세하게 재현한다. 영화 『관상』은 팩션 사극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소환하고 현실을 환기시키는 아이러니한 서사 양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폭력의 서사적 재현을 단순한 역사적 복원이 아닌,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성찰로 귀결시킨다.

41)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문성원·안규남 역, 『국가와 혁명』, 아고라, 2015, 15-16쪽.

4. 탐욕의 서사적 재현과 현대적 함의

영화 『관상』에서 탐욕의 서사적 재현은 수양대군의 개인적 욕망을 묘사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탐욕을 권력 구조 자체가 생산하는 욕망의 논리로 제시함으로써, 권력과 탐욕의 상관관계를 구조적 차원에서 성찰하게 한다. 이는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Wille zur Macht), 즉 탐욕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내재한 권력 확장의 충동이 특정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구조적으로 발현된 형태⁴²⁾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관상』은, 이 탐욕의 논리를 단순히 긍정하거나 자연화하지 않는다. 탐욕의 논리가 무소불위로 관철되는 권력 구조 속에서, 내정이 마주하는 비극은 바로 그 비정상적인 논리를 끝내 거부하는 한 개인이 감내해야 할 구조적 필연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포르투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내정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권력 구조에 포섭됨으로써, 그의 관상 기술은 탐욕의 논리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용된다.⁴³⁾

영화 『관상』은 역사적 권력 구조 속에서 소외된 약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당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듯한 몰입감을 유도한다. 이 몰입의 구조 속에서 탐욕의 서사적 재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넘어, 권력과 탐욕의 논리가 어떻게 개인을 포섭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한 현재적 성찰로 작용한다. 영화 『관상』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는 팩션 사극의 장르적 특성을 통해, 권력과 탐욕이라는 보편적 난제를 조선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영화 『관상』에서 드러나는 권력 정당화와 탐욕의 서사적 재현은 다음의 세 가지 층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상이라는 기호 체계를 동원하여 물리적 폭력양상을 초월적인 천명으로 치환하는 정당

42)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앞의 책, 273-274쪽.

43) 김경희, 앞의 논문, 53-54쪽.

화 구조이다. 이는 가시적인 살육과 숙청에 형이상학적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찬탈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상징적 기제로 작동한다. 둘째, 피지배자의 자발적 동의를 결여한 권력이 기호 조작을 통해 허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이다. 영화 『관상』에서는 수양대군 세력이 관상이라는 상징 자산을 점유하고 조작함으로써, 어떻게 대중의 인식을 장악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지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셋째, 탐욕을 개인의 파편화된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권력 구조의 필연적 산물로 재현시킨 서사적 논리이다. 이는 니체적 권력 의지와 마키아벨리적 포르투나의 개념을 통해 한 개인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포섭되고 배제되는지를 드러내며, 탐욕의 문제를 사회정치적 국면으로 확장시킨다. 관상이라는 운명론적 장치를 매개로 전개되는 이 비극적 서사는, 권력이 어떻게 신격화되며 그 과정에서 개별 주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구속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심화시킨다. 특히 영화는 관상과 천명이라는 담론이 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초월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내경 역시 관상과 천명이라는 해석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선택을 규정하게 되며, 결국 권력이 구성한 정당성의 질서 속으로 포섭된다. 이는 권력이 특정한 해석 체계를 통해 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고 주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영화 『관상』에 나타난 관상의 정치적 기능과 권력 정당화 기제를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관상이라는 전통적 인식 기술이 권력 구조 속에서 정치적 기능으로 전용되는 양상을 서사 구조와 인물 관계, 그리고 관상의 기호 체계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영화의 서사는 주변부에서 권력 중심으로의 진입, 권력 갈등의 발생, 폭력과 결단, 권력 장악과 배제라는 네 단계를 통해 권력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하며 특정 주체에게 집중되는지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양대군은 마키아벨리가 역설한 비르투(Virtù)와 기회(Occasione)의 논리를 구현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내정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권력 정당화의 수단으로 포섭되는 구조적 행위자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내정의 비극은 포르투나(Fortuna)의 영역, 즉 인간의 기술로도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격랑 속에 편입되는 구조적 필연으로 귀결된다.

한편 관상의 정치적 기능은 세 가지 층위에서 나타난다. 충역(忠逆)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전용, 기호의 전용(semiotic appropriation)을 통한 상징적 배제, 그리고 찬탈의 과정을 천명으로 치환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visual propaganda)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층위는 관상이 단순한 점술 체계가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고 폭력을 은폐하는 서사적 장치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가 영화 『관상』을 주로 운명론적 해석이나 스토리텔링 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관상을 권력 정당화의 핵심 기제로 재구성함으로써 영화 분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둘째, 마키아벨리의 비르투·포르투나 개념을 중심으로 권력 정당화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극 영화를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상이라는 전통적 기호 체계가 권력의 정당성을 구축하고 폭력을 은폐하는 시각적 프로파간다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이미지와 기호가 정치적 신뢰 형성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는 현대 권력 현상을 우회적으로 성찰하는 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영화 『관상』은 단순한 역사 사극의 범주를 넘어, 권력이 기호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은폐하며 탐욕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재현하는 정치적 텍스트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관상’은 사람의

운명을 읽는 기법인가?, 아니면 권력이 운명을 조형하는 수단인가?’라는 본 영화에 담긴 문제의식은 단순한 서사적 긴장을 넘어, 권력과 그 정당성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권력이 기호와 담론을 매개로 어떻게 현실을 구조화하고 개별 주체성을 규정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현대 사회의 권력 작동 기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범사회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시대와 문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권력이 이미지와 상징을 활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보편적 정치 메커니즘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장 자크 루소, 최현 역, 『사회계약론』, 집문당, 1977.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문성원·안규남 역, 『국가와 혁명』, 아고라, 2015.
마의도자, 조성우 역, 『마의상법』, 명문당, 198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端宗實錄 2』,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폴 켈리(Paul Kelly), 김성호 역, 『로크의 『통치론』 입문』, 서광사, 2018.

논문

- 강선희 외, 「동양 관상학을 적용한 성격별 얼굴 설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1(4), 한국디자인학회.
김경희,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관 연구」, 『한국정치연구』 26(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김민철, 「권력관계와 개별화 과정의 관계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종학, 「관상학에서 심상의 귀납적 접근 시론」, 『역사와 융합』 28, 바른역사학술원, 2025.
리기용, 「마키아벨리와 율곡의 리더십 비교」, 『율곡학연구』 40, 2019.
박성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철학논총』 102(4), 새한철학회, 2020.
송연주, 「역사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략」,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5), 2017.
양진호, 「명론(命論)을 활용한 영화 <관상> 분석」, 『스토리콘텐츠』 5,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2024.
우순이, 「역대 대통령의 貴에 관한 관상학적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윤영채, 「朝鮮時代 御眞과 상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병민, 「영화 <관상>의 스토리텔링 특성 연구」, 『스토리&이미지텔링』 24, 2022.

- 이성무, 「조선 후기 당쟁사에 대한 제설의 검토」, 『국사관논총』 81, 1999.
- 이수향, 「운명과 개인의 오래된 대결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 『영화평론』 26, 2014.
- 이한석.김태형, 「시각 권력에 관한 이미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2009.
- 이효인, 「2000년대 한국 사극영화의 아이러니 서사 연구」, 『영화연구』 89, 2021.
- 한만형, 「마키아벨리의 시민적 비르투에 관한 일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9.
- 황영미, 「한국 사극영화 장르의 유형 연구」, 『영화연구』 68, 2016.

기타 자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FUNCTION OF PHYSIOGNOMY
AND THE MECHANISM OF POWER LEGITIMATION IN THE
FILM THE FACE READER —FOCUSING ON THE NARRATIVE
REPRESENTATION OF POWER AND DESIRE—

LEE, JiYOUNG (LEE, Ji YOUNG),
SON, SEOHOO(SON, SEO HO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desire in *The Face Reader* (2013) through Machiavelli's theory of political legitimation and analyzes how physiognomy functions as a mechanism of political author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1453 Gyeyu Jeongna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interpreted physiognomy in terms of determinism or moral evaluation, this study reinterprets it as a form of visual propaganda through which rulers transform usurpation into a mandate of Heaven and justify the exclusion of political rivals.

Using *The Prince* as its theoretical framework and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s a historical reference,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legitimacy, symbolic representation, and powe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hysiognomy operates as visual propaganda that legitimizes usurpation while concealing violence. Second, the conflict between Grand Prince Suyang and Kim Jong-seo reflects a

struggle over virtue, in which physiognomic signs function as instruments of political exclusion. Third, Naegyeong's tragedy is associated with fortuna, representing political contingencies beyond human control.

This study reinterprets *The Face Reader* as a political text in which Machiavellian conceptions of power intersect with the historical realities of Joseon Korea and demonstrates how physiognomic signs contribute to political legitimation and exclusion.

Key Words : Physiognomy, Power, Narrative Representation, Visual Propaganda, Appropriation of Signs